금주의 법구-〈잡보장경〉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말라.
아는 대로 진실만을 말하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191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2년 · 단기 4351년 음력 2월 19일) 2018년 4월 4일 수요일

불교 뉴미디어 포교 생태계 구축 우선돼야

조계종 포교원 75차 연찬회서 쏟아진 제언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뉴미디어가 사회의 새로운 소통 수단으로 자리하며 불교 포교를 위한 뉴미디어 콘텐츠의 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이 3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뉴미디어 포교방법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75차 포교종책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찬회에서 모인 각 분야 전문가들은 뉴미디어 플랫폼과 콘텐츠 이용현황을 분석하고 불교 콘텐츠 진흥기금 등의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연찬회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을 비롯해 포교부장 가섭 스님 등 종책 담당자들과 유권준 불광미디어 웹콘텐츠 실장, 구희철 BTN라디오 PD, 유은상 BBS뉴미디어TF팀장 등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콘텐츠 개발이 가장 중요
진흥기금 통해 환경 조성을
니즈 분석 · 인력 양성 등
콘텐츠 관련 연구 선행돼야

기존 플랫폼 적극 활용 주문
"뉴미디어 포교, 소통서 시작"

진흥기금 등 장기 비전 필요

'한국불교의 뉴미디어 전략과 정책과제'를 발표한 유권준 불광미디어 웹콘텐츠 실장은 "뉴미디어 포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디어, 플랫폼보다 콘텐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불교 콘텐츠 유통 과정 파악 △불교 콘텐츠 니즈 분석 △불교 콘텐츠 제작 연구 △불교 크리에이터 인력 배양 △기술 발전에 대한 빠른 접근 등을 제시했다.

이날 공개된 한국콘텐츠진흥원 '장르별 콘텐츠 산업 매출액 규모'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국내 콘텐츠 산업 매출액은 110조 4000억원 규모로 전년에 비해 4.5% 증가하는 등 매년 늘고 있다.

유 실장은 "불교 콘텐츠의 기반이 되는 불교 지식콘텐츠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 대장경 등 구축된 정보가 국한되어 사용되고 있다. 연계 검색과 콘텐츠 창작을 위한 자료 제공으로 확장하는 작업을 불교계가 해야 한다. 사찰의 스토리텔링 개발을 위해 사찰에서 콘텐츠 진흥기금을 출연해 각 사찰의 문화와 문화재를 콘텐츠로 만들어 가는 작업도 병행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실장은 "불교 콘텐츠 제작의 생태계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 불교포교는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다. 뉴미디어에서는 크리에이터들의 역할이 크며 크리에이터들이 제작할 수 있는 환경과 프로젝트를 통해 수익도 창출가능한 생태계 조성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사찰을 비롯한 불교계가 어린이, 청소년, 장년층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콘텐츠 보급과 활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석심 포교원 포교차장은 "불교계는 정부와 효율적인 전통사찰 보존 관리정책수립을 위해 이미 전통사찰 전수조사 사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다"며 "전통문화 콘텐츠 보존 및 개발을 위해서도 정부와 협력해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은상 BBS뉴미디어TF팀장은 "방송사 현장에 있다보니 콘텐츠 개발에 앞서 저작권과 같은 불교 지적 재산권 문제부터 해결되야 함을 느끼고 있다. 요즘 각광 받는 AI스피커를 활용한 TV 큐레이션의 경우 기독교계와 달리 '불교'라는 검색 키워드를 입력해도 정확한 답변이 없다. 이를 위해서는 종단의 공식 설명이 있어야 한다. 콘텐츠 개발에 앞서 종단 차원의 공식적인 내용 정립, 저작권 확보와 관계기관 공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뉴미디어 활용 위한 인식 전환

이날 공개된 뉴미디어 분석자료에 따르면 콘텐츠를 실어 나르는 미디어 트렌드는 모바일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지상파와 종편, 케이블, 웹이 혼합되는 OTT(Over the Top) 서비스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뉴미디어 플랫폼 또한 다변화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플랫폼 다양화의 시기에 불교미디어 플랫폼의 개발보다 사회 트렌드로 자리잡은 플랫폼을 발빠르게 사용할 것을 주문했다.

SNS서 뉴미디어 방송을 진행하는 구희철 BTN라디오 PD는 "너무나 많은 뉴미디어 플랫폼이 있다. 공통점으로는 '소통'을 들 수 있다"며 "뉴미디어의 포교 활용은 결국 이러한 '소통'이란 특성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 PD는 "온라인에서 젊은 청년들을 모아 오프라인 공간인 사찰에 가도 기존 고령층의 불자들과 어울리기 쉽지 않다. 뉴미디어 포교는 출재가, 세대를 아우르는 소통에서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뉴미디어 시대에 불교가 인간의 삶에서 관계되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며 "다양한 뉴미디어 포교 방법론을 모색해 적용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3면에 계속〉



미세먼지에도 변함없는 佛心

연일 미세먼지가 심각한 수준을 이어가고 있어 외출과 여가 활동이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하지만 불자들의 불심까지 막지는 못했다. 지난 3월 28일 서울 조계사에는 마스크를 쓴 불자들이 유난히 많이 눈에 띄었다. 마스크를 쓴 채 부처님께 향을 올리고, 탑돌이를 하며 불자들은 변함없는 신행을 이어갔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불교계, 국민행복 위한 법석 마련한다

종단협, 4월 17일 서울파르나스 호텔서 법회 봉행

한반도 평화 통일 기원
대통령 참석 여부 관심

불교계가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에 앞서 국민행복을 기원하는 대규모법회를 서울서 봉행한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설정, 조계종 총무원장)는 3월 29일 서울AW컨벤션서 제3차 이사회를 열고,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모든 국민의 평화롭고 행복한 생활을 기원하는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한 기원법회'를 봉행키로 했다.

종단협에 따르면 기원법회는 4월 17일 오후 5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 호텔서 봉행되며, 10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운집한다. 각 종단 임원을 비롯한 주요사찰 주지스님, 정관계 인사, 재가불자 대표 등이 한자리에 모여 공식명칭이 변경된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국 불자들의 의지를 모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는 법석을 마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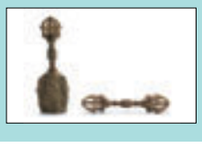
기원법회는 △식전 문화공연 △1부 기원법회 △2부 공양 순으로 진행된다. 식전행사에서는 연등회 홍보 영상물을 시청하며, 박범훈 불교음악원장이 기획한 전통문화공연이 펼쳐진다. 이어 법회서 명종명고를 시작으로 육법공양, 예불, 봉행사, 축사, 화청, 발원문 낭독 등을 진행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염원한다.

이 행사에서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 참석 여부다. 1981년 전두환 前대통령을 시작으로 2005 · 2007년 노무현 前대통령, 2009년 이명박 前대통령, 2013년 박근혜 前대통령 등 역대 대통령은 이 같은 불교계 기원법회에 참석했다.

이밖에 종단협은 이사회서 청계천 장엄등 이관의 건을 다뤄 청계천 전통등전시를 연등회보존위원회로 이관했다. 이는 전통등관련 업무 이원화로 인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제기에 의한 것이다. 또한 종단협 소유 장엄등에 대한 소유권을 연등회보존위로 이전, 소유지분을 가진 업체와 협의해 지방봉축위원회에 장엄등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천태종 총무원장 교체에 따라 종단협 수석부회장이 신임 총무원장 문덕스님으로 변경됐다.

2013년부터 매년 진행된 불교성지순례는 올해 7월 16~20일 몽골로 떠난다. 현지 대표사찰인 간단사를 찾아 몽골불교계와 관계를 증진시키는 한편, 한국불교계 지원으로 현지에서 활동하는 복지단체를 방문해 격려한다. 몽골에는 조계종 지원시설인 울란바토르 몽골 드림센터와 지구촌공생회가 건립한 유치원 · 청소년시설이 운영 중이다. 종단협은 몽골을 방문해 각종 복지시설에 약 3000만원에 달하는 성금 · 물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시방세계 A5
한성백제博, '영국사와 도봉서원' 특별전

기획 · 불교와 4차산업 A7
⑥ 공유사회와 불교공동체

범종의 명가 성종사가 만들면
풍경(풍탁)도 작품이 됩니다

풍탁과 연꽃 풍경 모두 대·중·소 3가지 사이즈로 구성되어 있으며
바람판도물고기, 연꽃, 구름 3가지 종류로 이루어져 선택 가능 합니다.



특징
1. 체인이 동재질이 아닌 스텐레스 재질로 되어 있어 강도와 내식성이 우수합니다.
2. 바람판이 두꺼운 황동재질로 되어 있어 견고하고 바람에 덜 흔들려 소리가 은은합니다.
3. 바람판과 풍경의 디자인이 세련되고 아름답습니다.
4. 바람판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람판 : 물고기, 연꽃, 구름)

견고하고 아름답고
소리 좋은 풍경(풍탁)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바람에 강하고 아름다운
최고급 명품 풍경(풍탁)

聖鐘社 SUNG JONG SA
◆ 전시장 :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3
◆ 공 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습지길 35
◆ 사이트 : www.sungjongsa.co.kr

이제 처마에도 연꽃을 달자!



연꽃 풍경



1) 황금컬러
2) 무늬
3) 민무늬 3종



구입문의
성종사 ☎ 02)733-6141